

이순신의 인성과 리더십 특성

노승석(盧承奭)

여해고전연구소장

이순신은 무과출신의 장수이지만 본래는 문인의 공부를 한 선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란 중에 《난중일기》를 썼고 주역점도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학문적 소양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순신은 본래 대대로 유학儒學을 업으로 해온 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만형 희신義臣과 둘째 요신堯臣 형들을 따라 서당을 다니면서 유교경전과 한시, 그리고 서법 등을 배웠다. 그의 수학 기간을 무과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21세 까지로 본다면 최소 10년 이상 공부한 것이다. 다년간 쌓은 그의 학문적인 자질은 드디어 32세 때 치른 무과시험장에서 드러났다.

이순신은 무과시험에서 한漢나라 때 황석공이 장량張良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소서素書』를 외었다. 시험관은 “장량이 신선인 적송자赤松子를 따라가 노닐었다고 하니 과연 죽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순신은,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요. 『통감강목』에 ‘임자 6년 장량이 졸했다.’고 했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서 죽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시험관들이 서로 돌아보며 “이것이 어찌 무인이 알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감탄하였다. 《충무공행록》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독실이 하였기에 보통의 무인이 알기 어려운 『통감강목』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이순신은 평소에 문인적인 소양을 쌓았기 때문에 남다른 실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순신의 인생관도 바로 이러한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인륜에 기반한 것이었다.

현대의 자본사회는 도덕추구보다는 물질적인 이윤추구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정이 메말라가고 사회가 어지러운 때일수록 도덕성 회복문제는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진(秦)나라 말기의 병법가 황석공(黃石公)이 “도란 사람이 밟는 것이다[道者人之所蹈].”라고 하였듯이 올바른 도리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항상 남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대할 때마다 충무공 이순신을 첫 번째로 떠올린다.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을 매번 승리로 이끈 그의 남다른 지략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순신은 본래 유학을 배워 문인으로 나아가 출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붓을 던져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스스로 찾은 것이다.

이순신은 평소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분명하였다. 그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지만, 자신이 나아가야 할 운명을 잠시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초극(超克)의 의지로서 일에 임하여 항상 자연과 인간을 관통할만한 당당한 기백과 집념으로 생활하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 사회에 나아가려고 할 때쯤 다음과 같은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충성으로 목숨을 바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초야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丈夫生世，用則効死以忠，不用則耕野足矣] 권세 있는 이에게 아첨하여 영화를 흠치는 일은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 최유해, 「충무공행장」 -

이 말은 이순신의 좌우명과도 같은 것이다. 윤희는 이에 대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때부터 대장이 될 때까지 이 뜻을 굳게 지켰다.”고 하였다.(「충무공유사」) 벼슬에 나가게 되면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시골의 농사일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이다. 사는 것이 어렵다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한 때의 부귀를 얻는 행위를 수치로 여겼다. 공자(孔子)가 말한 “의(義)롭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고 한 말(『논어』「술이」)과도 의미가 통한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살겠다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순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설사 반대하는 이가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늘 강조하였다. 남송(南宋) 때 고종(高宗)의 신하인 이강(李綱)이 그 당시 금(金)나라와 타협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항금(抗金)정책을 주장했으나, 반대세력인 화의파(和議派)에 의해 거절 당하여 마침내 떠날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자신의 주장이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선 반대의견에 따라 타협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현실 도피보다는 미봉책이라도 현실참여 속에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세방법임을 말한 것이다. 제갈량이 “용병의 방법이란 남과 화합함에 달렸다[夫用兵之道，在於人和]”고 하였듯이 상하간이 서로 화합하여 단결하면 어떠한 전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순신은 특히 부하들과의 신의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항시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 때마다 거듭 약속하며 다짐을 했던 것이다. 황석공은 “신의는 이견을 하나로 만 든다[信足以一異].”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의란 중론통합의 역할도 해준다. 정유년 8월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궤멸한 뒤 전남 회령포에서 우수사 김억추(金億秋)를 시켜 13척의 배를 모아 거북선 모양으로 장식하여 군대의 기세를 돋게 하였다. 이순신은 이 때 장수들과 약속하기를 “우리들이 임금님의 명령을 함께 받았으니, 의리상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죽음으로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오직 죽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들은 모든 장수들이 감동하였다.

명량해전 하루 전 9월 15일에는 전라 우수영 앞바다에서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 (『오자』「치병」)

한 병사가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오자』「여사」)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정유일기』 9월 15일 -

이순신은 국가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부하 장수들과 결사적으로 싸우기를 다짐하였다. 그 결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전공을 세울 수 있었다. 신의로써 독려하여 병사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심지어 피난민들도 배를 이끌고 와서 13척의 수군 배 뒤에서 떠나지 않고 지원하게 하여 군민(軍民)의 협력을 이루어 냈다.

인간사에서 신의란 도덕 실천에 기본이 돼 주는 덕목이다. 또한 상하간의 조화로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신의가 없다면 뜻한 일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의 지원과 동참을 얻지 못하여 끝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순신의 리더십의 핵심은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부하들이 잘 따르도록 지휘관이 항상 신의를 보여줌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강태공은 “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면 그 내부가 반드시 쇠망한다[一人兩心, 其中必衰].”고 하였다.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는 각자 초심(初心)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작은 조직일지라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다.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대의(大義)를 실천해 나갈 때 항상 믿음이 존재함으로써 상생의 길은 절로 열릴 것이다.